

주님께서 주신 환상

“나는 하늘에서 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19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많은 지시와 경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계시는 “환상”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항상은 아니더라도 종종 기적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너무나도 강렬하여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어진 정보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타인, 혹은 둘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주님과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에서는 환상을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훑어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에 대한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불순종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환상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에게 다가올 대홍수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13-18; 히브리서 11:7)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뜻을 알려 주시고, 자기 백성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주님과 이러한 만남을 통해 얻게 될 축복은 아브라함이 이 지시에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창세기 12:1-3

하나님께서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를 백성의 위대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환상을 받았을 때 그가 서 있던 땅조차 거룩해졌거나 성별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 당신의 종에게 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1-10) 그 이후로 모세가

주님의 지속적인 은총을 누리려면, 그 환상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높이 들리신” 주님을 보는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1, 8) 이 환상 속에서 이사야는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대답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였습니다. 이 지시는 주님께서 고대 시대에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대부분의 환상이 지닌 의미였으나, 항상 그렇게 명백하게 표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의 환상

신약성경에서 언급된 가장 주목할 만한 환상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16, 17; 요한복음 1:31-34) 여기서 예수님은 서른 살의 나이로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그 뜻은 “책의 두루마리”, 즉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편 40:6-8; 히브리서 10:5-9) 주님을 인도하기 위해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침은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 아래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지성조차도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 즉 환상이 주어져야만 했으며, 하늘이 그분에게 열렸을 때 그분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에 관해 기록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의미가 드러나자, 그분은 주저함 없이 그 일들을 수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늘의 환상을 순종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얼마나 컸던지요! 그분의 사역 기간은 짧았고, 매일매일이 지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모욕을 당하셨고,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았으며, 죄인들이 일으킨 거대한 “반대”는 결국 그분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잔혹한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2:3) 이것이 바로 그 환상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53:7) 그분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바치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9; 6:51) 그분은 “고통을 아는 자, 슬픔에 익숙한 자”가 되실 운명이었습니다. (이사야 53:3)

그분은 이 모든 어려운 경험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극심한 고통의 시련을 겪으시는 중에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2:10; 5:8

순종의 대가를 상쇄하기 위해, 주님은 목숨을 바치시는 그 순간에도 풍성한 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경험하신 평화와 기쁨은 그분이 치르시는 희생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27) 참으로, 바로 이 가 그로 하여금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순종하고, “십자가를 견디며 그 수치를 멸시”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2) 물론 이것은 미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 대한 기대와 약속된 상을 반드시 받으리라는 완전한 확신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현재의 평화와 기쁨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고통의 사람”이셨을 때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평화 속에 계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분의 힘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10

바울의 환상

타르수스의 사울은 처음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못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봉사하러 나갔던 바로 그 여정에서, 그는 서두 본문에서 언급된 그 계시적인 환상을 보게 되었으며, 후에 그는 그 일에 대해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바로 이 환상이 사울을 잘못된 길에서 멈추게 한 것이었다. 이 환상은 그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는 자로서 차지해야 할 위치와,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밝혀 주었다. 사도행전 9:1-16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지상 사역에 관해, 그 사역이 바울에게 지닌 깊은 의미를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을 겪게 될지를 전하라고 명하셨을 때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9:16) 하늘에서 받은 환상에 순종하는 것은 바울에게 큰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23-28; 12:7-10) 그러나 그는 이를 기뻐했습니다. 그 환상은 그가 위대한 메시아적 대의를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을 특권을 가졌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24

이러한 고난은 환상에 대한 그의 순종, 즉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순종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다. 아그립바에게 자신이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후, 바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먼저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선한 행실로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6:20) 바울은 왕에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6:21) 그 결과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았으며, 마침내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7, 8; 사도행전 20:17-25

바울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신의 가장 높은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어떤 일도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환상에 순종하여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으로부터는 결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든, 이방인의 신전이든, 배 위든, 감옥이든, 그의 삶을 사로잡은 유일한 열정은 그 하늘의 환상이 지닌 의미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게시된 지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와 세상의 소망이 구속주이신 그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또한 그리스도를 모든 원수, 심지어 가장 큰 원수인 죽음까지 그분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다스리실 분으로 밝혀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5-7; 고린도전서 1:23; 15:25,26

바울의 신실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였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27) 그는 믿음의 충실한 수호자였으며, 교회 내의 육신적인 기풍에 대해 거침없이 반대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참된 머리이심을 강조했으며, 형제들이 “나는 바울의 편이다” 또는 “나는 아폴로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4

세대의 끝

바울과 베드로, 요한의 예언들은 모두 현 시대의 말일에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주님 자신의 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림과 재림 시의 임재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며, “번개[그리스어: 밝게 빛남]가 동쪽에서 번쩍여 서쪽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오심[그리스어: 임재]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27)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날에 진리의 빛이 점차 밝아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새벽의 비유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비록 이 밝아움이 점진적이었지만, 결국 그분의 임재가 지닌 완전하고 맑은 광채는 모든 악과 무지, 미신, 그리고 죄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임재로 인해 “주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임을 확신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임재의 빛으로 가장 먼저 비추심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박국 2:14

예수께서는 말세에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어질 진리에 대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자신이 돌아오실 때 그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대접해 주시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45-47; 누가복음 12:37)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 시기의 주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기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밝히셨던 것과 같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 말세의 계시를 주실 것이라고 암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추가적인 계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언에 명시된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밝혀내야 할 것은, 이 이해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며, 수세기 동안 이어진 암흑기 동안 대부분 잊혀졌던 그 계시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과 예언들과 조화를 이루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구속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는 단지 하나 또는 몇 가지 개별 교리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리와 오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주제와, 그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이 지향하는 위대한 목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예언과 약속을

탐구해 보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항하여 일으킨 반역을 진압할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며,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함으로 회복되어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며 이 위대한 주제를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10) 선지자 이사야는 이 신성한 목적의 성취가 연약한 육신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이 그[예수] 어깨에 있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9:6,7

이 위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전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성한 목적이, 인간의 궁극적인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청사진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수세기 동안 성경의 이 근본적인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신, 교회와 국가를 통합함으로써 인간이 만든 왕국이 점차 세워졌습니다. 이를 ‘기독교 세계’라고 불렀으며, 비록 그 체제의 권력과 영향력은 이제 훨씬 줄어들었지만, 그 기반이 되었던 근본 원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 그분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듯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인간의 도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망—그리고 깨달음

이 시대의 끝에서 진리가 대대적으로 계시되기 전, 19세기 전반의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를 비롯한 예언 연구자들은 시대의 징조와 특정 예언들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손과 발에 못 자국이 남은 인간으로서 오실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기대에 차고 실망해야만 했다. 그들은 그분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육신을 바치셨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신성한 존재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도둑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임하실 것이며, 예언의 성취를 “지켜보며” 주목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15; 마태복음 24:42, 43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800년대 후반, 한 무리의 진지한 성경 연구자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예언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주님의 재림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해 재림하실 것임을 보여주었으며, 예언된 세상의 종말은 실상 현재의 악한 사회 질서의 종말이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수립임을 밝혀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13) 사도행전 3:20, 21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묘사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증언하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자 비전이었으며, 성서()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베드로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비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진리의 환상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백성에게 주신 모든 위대한 환상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세상의 종말에 관한 자신의 경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자의 날들”, 즉 이 “현재의 악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마태복음 24:37-39; 갈라디아서 1:4) 그러나 노아에게 다가올 대홍수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와 관련하여 섬길 특권을 허락하신 것은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뜻을 알려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 축복의 “후손”이,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고통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살고 통치하게 될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로 이루어진 믿음의 후손이 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16, 27-29

모세는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야 할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인류에게 임할 더 큰 구원과, 새 언약의 조건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일에 대해서는 거의 통찰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이 예언과 다른 예언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아주 명확히 이해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신명기 18:15-19; 사도행전 3:22-26; 사도행전 7:37; 히브리서 12:18-24

이사야는 “높이 들리신” 주님을 보았고, 그 광경을 통해 그토록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의 뜻을 행하도록 영감을 받았으나, 그가 본 하나님의 형상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처럼, 그가 환상 속에서 본 “세라핌”에 그토록

적절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속성들—그분의 지혜, 공의, 사랑, 그리고 능력—의 경이로운 깊이와 조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6:1-8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을 때, 그분의 지상 사역의 목적, 즉 인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구약의 예언들이 그분께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12)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에 관해 성경을 풀어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 일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32

오순절이 되어서야 그 환상의 의미가 교회의 “부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6-39)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는, 즉 이 시대의 “더 나은 제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23) 이 귀중한 진리는 암흑기 동안에도 간과되었으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환상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거역하지 않았던 그 환상은 그 모든 함의에서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을 포함하도록 진전되었으며, 그들에게 왕국의 약속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기회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11-22) 그 후, 바울은 다른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삼의 하늘”과 “낙원”—“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끌려 올라갔으며”,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에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1-4; 베드로후서 3:13)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제삼의 하늘”을 볼 수 있으며, 바울이 “낙원”에서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온 인류가 지상의 생명과 평화가 온전한 전 세계적인 에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51:3; 에스겔 36:33-36) 바울은 자신이 본 것을 선포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계시를 통해 곧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14; 디모데후서 4:2

진리에 대한 책임

앞서 언급했듯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환상을 주셨을 때, 그것은 사역을 위한 위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리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사역의 위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겨지는” 것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자격을 포함하는 위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1

우리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기” 위해(이사야 61:2)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우리의 발이 신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혀를 사용하여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환상의 올바른 정신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해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신 분께 우리가 드릴 말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비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순종에 포함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5) 이보다 부족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의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16; 빌립보서 2:15) 그러므로 우리도 진리의 능력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비전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따르더라도 기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동안 신실합니다.